제49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 성료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9~11일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에서 제49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현 주소와 국제 협력방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조망해 보는 자리로,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 최명현 제천시장, 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 전력기술인협회 유상봉 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오두석 이사장,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 미겔 타이겔러(Michael Teigeler)

전기협회는 지난달 9~11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에서 제49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9일 진행된 개막식 모습.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기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크숍 개막행사에서 특별세션을 진행한 김권수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미겔 타이겔러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 위원장, 다카하시 다케히코 일본전기설비학회(IEIEJ) 부회장(사진 왼쪽부터).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왼쪽)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이기영 이사장이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위원장, 일본전기설비학회(IEIEJ) 다카하시 다케히코(Takahashi Takehiko) 부회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이기영 이사장 등 국내 · 외 전기계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 1,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기협회 조환익 회장은 개막 환영사를 통해 "협회에서는 매년 전기의 날을 기념해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개최해왔으며, 이제는 전력산업계를 대표하는 선진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말하고 "협회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통해 전기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기술 · 표준화 워크숍(4건)과 신기술 · 신제품 기술설명회(5건) 등 전기 분야 전반의 현안과 미래를 아우르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서 실질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대한전기학회 기술기준연구회와 독일, 일본과 함께 준비한 전기기술 전문세션에서는 제천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전기협회는 9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학술 · 기술 · 교육 ·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 수행할 계획이다.

워크숍 행사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대한전기학회 합동 세미나 모습.

기술 세션 진행 모습.

한 · 독 · 일 전기기술 세미나가 양일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기협회, 전기공학도 25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6일 전기협회 본관 회의실에서 우수한 전기공학도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기협회는 우수인재를 발굴 · 육성하고 이공계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세대학교 4학년 전상률 학생을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 전기공학도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전기협회는 1977년 11월 (재)대한전기협회 장학회(現 이사장 김무영 전기협회 상근부회장)를 설립, 매년 우수한 전기공학도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전기협회 장학회는 4월 현재까지 총 754명에게 19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국내 장학생(694명/16억9,000만 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19명/2억3,000만 원), 학술연구인력(16명/2,900만 원)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기협회, '한·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4' 7월 1~3일 개최

한 · 중 전력산업의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양국의 우호적 교류협력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이사장 LiuZhenya)와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시안(Gaosu Shenzhou Hotel)에서 '한 · 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4'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 · 중 전력기술 컨퍼런스 2013'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양국 전력산업계 주요인사와 전력산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양국 전력산업계의 현황, 미래계획 및 양국 전력산업계 협력 가능분야와 환경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주요일정은 첫째 날 대한전기협회와 중국전력기업연합회간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 주제발표, 질의응답, 토론 및 만찬, 셋째 날은 중국 전력산업체 방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전력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상호 이해하고 현재 전력산업계에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토론함으로서, 양국 전력산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폭넓은 기술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 및 기타문의는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3393-7671)로 하면 된다.

'2014 KEPIC-Week' 논문 모집

대한전기협회 KEPIC처는 오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4 KEPIC-Week' 행사와 관련, 주제발표 논문을 모집한다.

논문은 품질보증, 원자력기계, 발전기계, 전기계측, 화재, 구조, 환경 등 행사 목적에 적합하고 KEPIC과 관련된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소재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된다.

신청일은 5월 30일까지이며, KEPIC 홈페이지(www.kepic.or.kr)에 접속해 초록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세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논문 제출일은 7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KEPI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력기술교육원, 5~10월 개폐장치전문기술 보강교육 과정 진행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개폐장치전문기술 보강교육 과정을 개설, 진행한다.

이번 보강교육 과정은 변전전문회사의 회사별 기술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핵심기술 분야인 GIS 차단부 및 메커니즘 분해점검 · 조립 부분을 중점 교육함으로써 변전전문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설된 것으로, 6개월 동안 총 11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각 회당 교육일정은 8일(교육 6일, 평가 2일)이며 대부분(80%)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필요에 따라 한전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개설한 한시적 특별 보강교육으로, 변압기필수기술자에 대해서는 이미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보강교육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3월 초 울산전력과 인천전력을 방문해 362kV GIS, 170kV GIS 등 관련 설비에 대한 이설방안 협의에 이어 4월 운송을 완료하고, 시운전과 시험도 마침으로써 해당 설비의 개설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전력기술교육원은 변압기 및 개폐장치 보강교육 후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기능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학습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